

사회

전남대 세계각국 유학생 돕는 '맨투맨' 프로젝트

학습에서 일상까지... 우리는 '글로벌 짝꿍'

"효진이 언니는 제겐 목소리 같아요. 추운 겨울에 저를 감싸주고, 공부도 도와주는 없애선 안될 존재 말예요."

유학생들 학교 정착 도와

3일 오후 4시 전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1층 공부방. "오만"이라고 쓰지만, 읽을 땐 '입만→입만'으로 변하는 거야. '음절말평과 열음화'라고 하는 현상인데..." 10m(3평) 가량의 공부방에서 4학년 김효진(여·25)씨가

옆에 앉은 쉬빙빙(여·23·1학년·중국)에게 '국어 음운론 강의' 교재를 설명하고 있었다. 쉬빙빙은 "언니, 좀 천천히 말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라며 노트에 글을 쓰면서 가르치는 효진씨의 손을 잡아 공부방에 있던 6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이들은 전남대 교육발전연구원 마련한 '글로벌 공부 일촌'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다. 쉬빙빙을 포함한 중국에서 온 유학생 3명은 지난 9월부터 효진씨를 비롯한 3명의 한국 학생들과 일주일에 2번씩 만나 전공과목을 함께 공부해오고 있다. 유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

해 개설한 프로그램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다. 중국에서 온 루팡(여·22·1학년)씨는 "중간고사가 끝난 뒤 첫 수업 때 교수님께서 '우리 유학생들 공부 많이 했네. 이전에 시험지를 백지로 내는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번엔 달라. 공부한 흔적이 있던 말이야'라고 칭찬했다"며 "이게 다 언니 오빠 덕분"이라고 말했다.

6명 모두 국어국문과 학생인 이들은 강의 교재를 함께 공부하는 것 외에도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는가 하면 학교 축제기간에 주말에서 밥을 같이 지새우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전공실력도 기르고 서로의 문화와 생활상을 접하게 됐다.

쉬빙빙은 "효진이 언니가 지난 11월 11일에 빼빼로를 선물해 줬어요. 우리 중국에는 빼빼로 데이 같은 젊은이들만의 기념일이 없거든요"라고 소개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루팡씨는 "중국 학생들도 축제기간에 술을 많이 마시지만 한국 학생들은 정말 술에 관해서 최고"라며 웃었다.

1대1 멘토링... 학습효과 만점

전남대는 2009년 2학기부터 '아하! 세계학습공동체'라는 프로그램을 신설, 유학생과 한국학생으로 구성된 79개 그룹 355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글로벌 공부 일촌'과 '글로벌 한

울학습'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룹별로 진행된 프로그램이 유학생들에게는 학교 정착을 돕고, 한국 학생에게는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한 계기가 됐다는 학생들의 호응에 따라, 전남대는 2010년 1학기부터는 운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대교육발전연구원 박선희(여·33)씨는 "이들 학생들에게는 프로그램 활동이 경력으로 남게 돼 취업 준비에 유리하다"면서 "이를 반영하듯 학점과는 무관한 프로그램이지만 참여율이 아주 높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대에는 중국을 비롯한 40개국 출신 1천여명의 유학생이 생활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3일 오후 '글로벌 공부일촌'이 열린 전남대교육발전연구원 1층 공부방에서 학생들이 전공교재를 보며 토론학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쉬빙빙(여·23·중국)·김효진(여·25)·김민지(여·21)·루팡(여·22·중국)·박아능(24)·박용룡(21·중국)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원침 (7971) 김장두



나주 영산포초교

'친환경 급식' 최우수

나주시는 4일 영산포초등학교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제6회 친환경농업대상 학교급식부문'에서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산포초교는 지난 2004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의 80% 이상을 친환경 농산물로 사용하고 인스턴트 식품 안 먹기 운동 등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나주시는 영산포초교에 급식시설 개선비로 2천만원의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나주시는 관내 122개의 모든 보육시설과 초·중·고교에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해남서 학생 등 53명

집단설사·복통 호소

해남군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4명을 포함한 53명이 집단으로 설사와 복통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4일 해남군보건소에 따르면 이 지역 도 중·고교 학생과 교사 등 53명이 2일 밤부터 설사와 복통을 호소해 이들 중 39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 학교는 급식이 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2일에는 점심 급식 때 학생들에게 비빔밥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학생들로부터 가검물을 채취해 분석에 들어가는 한편, 최근 3일간 제공된 음식물과 조리 도구 등을 수거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사체처리 부탁했다" 혐의범 달미

○...사망한 남편이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미망인에게 거액의 돈을 끌어내려한 '뭍살' 20대가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은 4일 "사망한 남편이 생전에 사체 처리를 부탁했다"며 애인의 친구 부모를 협박해 돈을 끌어내려한 A(27)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A씨는 지난달 4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서 애인 친구 부모인 B(여·47)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여중생의 시체를 처리해 주면 5천만원의 주기를 했는데 주지 않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을 납치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A씨는 3개월 전 암으로 사망한 B씨의 남편이 생전에 교통사고로 여중생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A씨는 이같은 내용의 협박편지를 B씨의 집 우편함에 넣으려다 경찰에게 '달미'.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 소방공무원 80억 소송

1,581명 "초과근무 수당 달라" 집단 청구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움직임과 관련해 광주·전남 소방공무원들이 8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지역 소방공무원 566명은 4일 소송대리인인 S법무법인을 통해 광주지법에 초과근무 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간 점을 감안해 "1인당 500만

원씩, 모두 28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들은 "소방공무원들이 주 84시간, 월 365시간 근무시간 가운데 정규 근무시간을 제외한 195시간 중 75시간의 수당만 받았다"며 "최근 3년간 1인당 5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전남지역 전·현직 소방관 1천15명이 광주지법 복판

지원에 1인당 500만원, 총 50억7천5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참여한 광주·전남 소방공무원들은 모두 1천581명, 청구액은 79억5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전남 등 3곳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 대구, 경기, 충북 등 9개 지역 소방관들이 초과근무 수당 지급소송을 준비 중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한풀썩인 신종플루...예보는 계속 4일 오전 광주시 북구 동신여자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신종 플루 예방백신을 받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플루 감염 확산이 진정세에 들어갔다고 보고, 전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리직기자 jrwi@kwangju.co.kr

"남구청공무원 공짜 주유" 허위 증거 제출

폐기물처리업체 업체 간부 구속

광주 남구청의 폐기물 위탁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을 무효화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부풀려 조작한 업체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

재구)는 4일 남구청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 허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로 폐기물 처리업체 간부 A(4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공

무원 B(42)씨가 주유소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340만원 상당의 기름을 공짜로 넣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검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8월 A씨로부터 차량용 기름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남구청이 음식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업체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한 데 반발, 입찰을 무효화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친분 등을 이유로 한차례 '공짜주유'를 받은 적은 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기름을 넣지는 않았고, 문제가 된 영수증은 A씨의 부하 직원이 자신의 차량에 주유한 것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 이외에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불구속 입건된 또 다른 공무원 C(44)씨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고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 주말·휴일 '쌀쌀'

비·눈내리는 곳도

주말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4~8도로 예상되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의 물결은 2.0~4.0m로 높게 일겠다. 휴일인 6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개겠으며, 낮부터 추위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주의 기온은 0~9도. 한편 기상청은 연말까지는 평년을 웃도는 기온 분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비나 눈의 양은 5mm 미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용인 화공약품 공장 폭발 3명 사망

4일 오전 3시12분께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유운리 화공약품 생산공장의 'R코리아'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이철(64), 이순영(여·63), 최병철(61)씨 등 3명이 숨지고, 윤모(62), 심모(47)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폭발과 함께 발생한 불로 R사 공장 건물이 모두 무너졌고 6~7m 떨어진 주변 공장 일부가 꺼그러졌으며 공장 앞에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

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발생 10여분 만인 오후 3시25분께 진화됐다. 경찰은 폭발이 공장 안에서 '저진동 전기충격 압파쇄 초고속 무진동 파쇄약'을 제조하는 혼합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화공약품은 R사가 암반 파쇄용 다이너마이트 대체품으로 개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사는 지난달 14일에도 용인시 공세동 한 컨테이너안에서 같은 약품의 혼합 실험을 하던중 폭발사고를 일으켰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Weather forecast section including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with a map of Korea, '매서운 칼바람 '쌩쌩'' (Cold wind 'ssings'), and temperature tables for various regions like Jeonju, Gwangju, and Jeonju.